설 명절 앞둬 '택배대란' 우려

택배노조제주지부 오는 27일 총파업 예고
"과로사 속출… 택배기사 처우개선 등 절실"

택배분류 업무까지 도맡으며 야간배송까지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과로사 근절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택배 물량이 쏟아질 설 명절을 앞두고 자칫 택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제주지부(이하 노조)는 1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특수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죽음의 분류작업을 거부하고 '살기 위한 배송'을 추진하는 등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서울에서는 택배업체와 노조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회의에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20~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파업이 가결되면 오는 27일 '살고 싶다 사회적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 지난해 10월 택배사 과로사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5명의 택배기사가 쓰러지고, 1명이 사망했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택배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말했고, 정부와 택배사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쏟아지는 물량 앞에서 택배노동자는 목숨을 걱정하며 배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노조는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분류 인력을 맡을 인력 투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야간배송 중단, 지연배송 허용, 택배요금 정상화 등을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류작업 인력에 대한 관리 책임과 비용을 원청택배사가 100% 책임지고, 설 명절 특수 전에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들은 "제주 노동·시민·진보정당과 함께 '살고싶다 사회적 총파업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불법과 갑질, 죽음이 도사리는 택배현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지역 택배 노동자들이 19일 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이달말 총파업을 예고했다.이상국기자

제주바다 불청객 괭생이모자반 19일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괭생이모자반 수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 코로나19 확진자 500명 넘었다

19일 기준 503명 기록… 22명 격리 치료중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다.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명(제주 501~503번)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501번과 502번 확진자는 제주 483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됐다.

두 확진자 모두 가족(483번)의 확진 판정 이후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503번 확진자는 경기도 용인시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하루 동안 총 507건의 진단검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1명(제주 500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500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현재 확인중이다

19일 5명의 제주지역 확진자가 퇴원함에 따라 도내에서 격리중인 확진자는 22명, 격리해제자는 481명(이관 1명 포함)이 됐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8일 제주소년원인 한길정보통신학교 수용소년과 근무 직원 등 총 84명에 대한 2차 진단 검사를 완료했다.

앞서 도는 지난 6일 한길정보통신학교 내 수용소년과 근무 직원 등 총 88명에 대해 1차 진단검사를 실시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차 진단검사에서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도는 향후 교정시설 내 모니터링을 강화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나갈 방침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택시 빼앗아 운전하다 불 지른 30대 구속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자 택시를 빼앗아 몰고가다 불을 지르고, 또다른 택시를 타고 간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20분쯤 제주시 애월읍 중엄리 해안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결제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택시기사를 위협해 밖으로 쫓아낸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10여분간 택시를 몰고 가다 애월읍 구엄리 인근 도로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했다. 이 불로 택시 앞좌석이 불에 타는 등 소방당국 추산 약 1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택시에 있던 현금을 훔쳐 도주하다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하고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다혜기자

서귀포 화재 원인 둘중 한건꼴 '부주의'

작년 발생 93건중 43건

지난해 서귀포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소방서는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93건을 분석한 결과 43건(59%)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그 외 ▷전기적 요인 19건(20%) ▷미상 14건(15%) ▷기계적요인 6건(6%) ▷자연적 요인 3건(3%) ▷방화의심 3건(3%) ▷제품결함 2건(2%) 등이다.

지난해 서귀포지역에서는 93건의 화재가 발생, 8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모두 14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19년에는 105건의 화재로 7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3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었다.

화재발생 장소는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총 56건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 기타 18건(19%), 임야 11건(11.8%), 차량 7건(7.5%) 순이다. 특히 과수원·농경지 등에서 농사부산물을 태우던 중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잇따르는가 하면 쓰레기 소각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빈번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서귀포소방서는 지난해 화재발생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각행위 금지 홍보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으로 활동·예방순찰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고질적인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경각심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영종기자

작년 산악사고 1717건

세계유산본부 "겨울철 조심"

최근 한라산 설경을 만끽하려는 탐방객이 늘어나면서 산악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 한라산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1717건으로 사망 3건, 골절 17건, 탈진 93건, 조난 8건, 기타(단순 수송) 등 1596명이었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산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달래밭대피소 등 고지대 3개소 및 각 탐방로 입구에 안전구조요원 8명을 배치하고 간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한라산 등반로 주요 지점 26개소에 자동심장제세동기(AED)와 약품함 16개를 설치해 긴급상황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태윤기자

"학교급식소 노동자 사고 제주도기자상 선정 환영"

한라일보 송은범 기자가 '학교 급식소 손가락 절단 사고'를 심층적으로 다룬 기사로 제주도기자협회의 취재보도 부문 제주도기자상에 선정된 것과 관련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김은리)가 19일 환영 논평을 냈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송은범 기자는 '학교 급식소 손가락 절단 사고'를 제주지역에서 최초로 보도했고 이 보도 이후 제주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여러 언론을 통해 기사화됐고, 열악한 환경에서 절단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급식 노동자의 아픔을 세상에 알렸다"면서 "송 기자가 '학교 급식소 손가락 절단 사고'를 취재하고 보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 제주도교육감이 '학교 급식소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올해 예산에 산업안전보건 사업비를 3배 이상 확보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도두해상서 남성 시신 발견

제주 해상에서 3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4분쯤 제주시 도두항 제주해경 도두출장소 남서쪽 약 100m 해상에 사람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 조사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A(35)씨로 확인됐다.

해경은 시신을 제주시내 병원으로 안치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그랜드 보청기
2021년 신축년 감사 이벤트
*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최대 50~70%할인
탐나는전·제로페이 가능
삼춘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렴수다!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충전식 귓속형 보청기
제주도내 전지역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 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장완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 하나약국 · 한국병원 · 시외버스터미널 · 오라파출소 · 국제보청기(국제기계2층) · 한라체육관 · 실내수영장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예감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2021년 3월 납품 예약마감
사전예약 특전(2년생 탱자대목) 2022년 3월 납품
예약기간 2021년 3월 10일까지
히트예감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남진해(카라향), 제라몬, 탐나는봉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탱자묘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